

이기는 비결은 오직 일초 일초 현재에서 새출발하는 것이다

오직 하나님만 사모해 다른 생각은 할 수가 없었다

마음의 싸움을 시작하게 되면 호흡하는 것까지 조심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나를 의식하면 여지없이 마귀가 주는 생각에 떨어지므로 나를 의식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기를 쓰지만, 그러다가도 자신도 모르게 순간 자기를 의식할 때가 있다. 그러면 그대로 마음의 싸움에서 여지없이 실패한 고로 가슴을 치며 머리를 시멘트 벽에 들이 받으며 “너 같은 새끼는 죽어라”하고 자신을 짓기졌다.

오직 그 생각이 하나님께만 있어 온 정성을 하나님께만 기울게 되어 있는 고로 다른 생각은 할 수가 없었다. 과거를 생각할래야 할 수가 없었고, 상대를 의식할래야 할 수가 없었다. 그러므로 고도로 사모하는 그 향환의 정도가 한 시간 전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심정보다 지금 현재 하나님을 사모하는 심정이 한층 고도로 올라가야 된다. 하나님만을 고도로 사모하는 생각이 그대로 하늘을 찌르는 고로 다른 생각은 할 수가 없었으며, 오로지 간절한 심정으로 하나님만을 사모했던 것이다.

여러분들! 은혜 받는 중에 마귀는 형제들과 말을 하는 사이에 틈을 타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람은 될 수 있는 한 사람들을 피하여 접촉할 기회를 만들지 않았고 그 은혜를 쏟을까봐 발뺌 떠는 생활을 오십평생 했던 것이다. 노력없는 안 되는 것이다. 사람들의 접근을 피하여 혼자 걷기도 많이 걸었다. 일생을 오직 일편단심으로 하나님 밖에는 몰랐던 고로 그 귀한 은혜를 쏟을까봐 늘 찬송을 쉬지 않고 불렀다.

이긴자가 걸어온 발자취 좇아야

그러므로 이긴자가 걸어온 길을 만분지 일만 따라와도 구원은 문제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나누히 말했다.

유사 이래 이긴자가 걸어온 이와 같은 길을 걸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것이다.

여러분들! 이긴자가 걸어온 그 발자취는 생각 전체가 하나님만을 향한 것이다. 이 사람을 봐도 하나님 저 사람을 봐도 하나님으로만 여겼지 열시의 대상자가 이 사람에게는 없었다. 누구든지 내 하나님처럼 보였던 것이다.

하나님처럼 보이지도 않는데 일부터 하나님처럼 보려고 애를 쓴 것이 아니라 저절로 하나님처럼 여겨졌던 것이다. 누구나 너무나 고맙고 감사한 하나님처럼 여겨져 머리 숙이며 마음 속으로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했던 것이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로 이것을 하라 하면 이것을 하고, 저것을 하라 하면 저것을 했던 것이다. 종의 종노릇을 했던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자유율법에 걸리는 고로 곧 은혜가 떠나버리는 것이다. 종의 종노릇을 해야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거하시지 조금이라도 내가 주인 노릇을 한 다든지 윗 사람 노릇을 하면 은혜는 순간 떠나버리는 것이다.

자유율법은 마음으로 가는 길이다

이 길은 마음으로 이루어지는 길이다. 이긴자와 친하다고 해서, 이긴자의 손을 거쳤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길이 아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심정이 하나님의 인격이 갖춰져야 하나님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되고 안 되고는 모두 마음에 달려 있다. 그 마음이 항상 희생적이며, 항상 겸손하며 항상 종의 종인 입장에 서야 그래야 은혜가 간직이 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성품인 것이다.

이 사람이 항상 홀로 있을 때면 눈물을 흘리는 것은 형제의 사정이 진짜 내 사정으로 여겨지는 고로, 눈물이 그칠 날이 없다. 하나님은 온유하고 자비로운 사랑의 심령이고 로 항상 희생적이다. 하나님의 심령은 형제 전체의 사정이 당신의 사정인 고로 누구를 특별히 사랑하고 누구는 관심을 안두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누구에게나 똑같은 평등의 신인 것이다.

그러나 마귀에게 사로잡히면 무던 심령이 되는 고로 자기밖에 생각할 줄을 모른다.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우리들만 구원있고 너희들은 구원이 없다는 식의 사고방식은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인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누구나 저절로 하나님처럼 여기는 고로 누구에게나 저절로 고개가 숙여지고 그렇게 매를 수가 없다. 하나님의 마음은 나와 내가 없는, 누구든지 내 사정으로 여기는 평등한 사랑의 마음인 것이다.

승리제단 식구들은 항상 어디서나 분이 되어야 한다. 서로 만나면 활짝 웃으며



구세주 조희성님

면서 꼭 인사를 나누고 형제의 잘못을 내 잘못으로 여기면서 서로 어려운 일이 있으면 협조를 해야 한다. 형제가 죽어 가거나 형제가 잘못되거나 아랑곳없이 자기밖에 모르는 그러한 태도는 이기적인 마귀의 태도이다.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지 않는 것이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정을 일찍이 알게 된 이 사람은 늘 눈물을 흘렸다. 여러분들은 거리에서 떠는 거지가 불쌍히 보일지 모르나 6천년 동안 마귀에게 짓밟혀 왔던 하나님만큼 불쌍한 존재는 없는 것이다. 하나님의 깊은 속사정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너무나 불쌍한 고로 ‘하나님! 제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는 한번도 한 적이 없는 것이다. ‘하나님! 이것을 제물로 삼아 이것이 희생제물이 되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이것을 희생제물로 삼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당신의 뜻을 이룬 다음에 이것은 지옥에 던져주세요.’

그 다음의 구원을 원치 않았다. 오로지 희생제물이 되겠다는 그 결심 그 심정이 지금까지 이어져 왔다. ‘이것을 희생제물로 하여 당신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당신 뜻을 다 이룬 다음, 온 인류를 다 구원한 다음 이것은 절제조각처럼 버

려도 좋습니다. 당신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이와 같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그 충성심, 오직 그것 뿐이었던 언제 한 번 하나님께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는 이러한 기도는 해본 적이 없다. 나를 위해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나를 사랑하는 음란죄요, 욕심을 바탕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자유율법에 걸리는 것이다. 이 사람은 하나님이 늘 함께하신 고로 항상 희생적인 사정에 맞춰 움직이던 것이다.

하나님의 신은 온유, 겸손하고 정결하고 신성한 마음속에 거하시지, 조금이라도 불의를 행하거나 욕심을 부리거나 조금이라도 자기를 의식하는 사람에게는 함께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이 길은 공의로운 길이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느냐 안 품었느냐 여기에 달려 있다. 그러므로 언제나 내 입장에 서지 말라. 상대방 입장에 서고 상대방의 사정을 깊숙히 알고 상대방의 사정에 맞춰 움직이는 것이 공의로운 입장인 것이다.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을 처음 보고 무섭다고 하는 것이다. 아무리 이 사람이 사람을 배 풀어도 마귀의 영에게 사로잡힌 사람은 무서워하는 것이다. 그러나 며칠 지나고

나면 가까운 친구처럼 느껴지는 것은 하나님의 영의 은혜를 입어서 그렇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항상 일초 일초 점검하세요. 오직 일초 일초 현재에서 시작해야

하나님께에서 있느냐 마귀에게서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일초 일초를 잘 믿어야지 현재 일초 일초를 잘못 믿으면 작년에 잘 믿은 것은 소용이 없다.

미래도 과거도 필요없는 것이다. 내일부터 잘 믿겠다는 것도 필요없다. 간혹 내게 와서 “내년부터는 한 번 잘 해보겠습니다”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다. 내가 “well 내년부터 하십니까? 지금 당장 하세요...”해도 그들은 못 알아 듣는 것이다. 내년부터 내일부터가 무슨 소용이 있는가? 현재 시작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그 내일은 영원히 오지 않는 것이다.

지금 현재 내가 하나님께 서 있느냐 서 있지 못하느냐를 스스로 점검해 가지고는 지금 당장 하나님께 바로 서야 한다. 그래서 일초 일초 믿으라 하는 것이다.

과거도, 미래도 필요없다. 그러므로 일초 속에, 현재 속에 천국이 있지, 과거 속에도 미래 속에도 천국은 없는 것이다.

이 말은 철학적인 말이다. 현재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미래나 과거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다. 그러므로 현재 속에 하나님을 그대로 내 맘에 모셔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에 있다가 되는 것이다. 영생도 현재에 있는 것이다. ‘내가 영생의 물결 속에서 현재 존재하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 현재 영생의 물결 속에 존재하면서도 영생의 확신이 없는 자는 마귀 생각에 사로잡힌 것이다. 일초 일초 온전한 완전자가 돼라! 했던 것이다. 과거에 잘 믿은 것, 미래에 잘 믿겠다는 결심 다 필요 없다. 지금 바로 현재가 가장 중요한 것이다. 현재 내가 잘 믿고 하나님 안에 온전히 있으면 그가 바로 하나님인 것이다. 과거에 잘 믿었던 것, 하나님께 어떻게 기웠던 것 그 과거를 생각하는 자체가 자유율법에 걸리는 것이다.

이기는 비결은 현재에서 항상 새출발하는 것

항상 오늘이 첫 날인 심정으로 오늘이

출발이고 이 시간이 출발이어야 이러한 마음을 항상 가져야 향상이 있고 발전이 있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이긴자가 걸어온 발자취요 철학이다. 항상 현재에서 현실에서 새 출발하는 것이 바로 자신을 이기고 온 세상의 마귀를 여지없이 이길 수 있었던 이긴자의 비결이었다. 항상 이러한 생각 속에 움직이는 고로 현실에서 계속해서 새 출발하는 심정으로 사모하니가 일초 전보다 일초 후가 더욱 더 사모하게 되는 것이다.

이인이 된 다음에는 나를 부족하게 생각하는 것도 죄가 되었다. 하나님만 의식하면 부족하게 생각이 되지 않는데 나를 의식하니가 부족하게 생각이 되므로 죄가 되는 것이다. 자신을 부족하게 생각하는 것이 죄가 된다는 것을 예수나 석가도 몰랐던 것이다. 그러나 은혜를 입은 다음에는 과거를 생각하는 것도 뒤 돌아보는 음란죄가 되었다.

왜냐하면 과거를 생각하려면 과거에 살던 영인 죄인의 영이 다시 들어와야 과거가 생각하므로 마귀 생각을 했다가 되므로 죄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세밀한 것은 아무도 가르쳐주는 이가 없었다. 그러나 끝도 없는 영의 충으로 상승하는 가운데 끝도없이 새로운 층을 파헤쳤던 것이다.

그러므로 그 세밀한 자유율법을 하나하나 점검하여 가는 가운데 걸음걸이 하나하나도 조심하여 움직였다. 호흡 하나하나까지도 그대로 아무 생각이 호흡 앞, 하나님 안에 있다가 되는 것이다. 영생도 현재에 있는 것이다. ‘내가 영생의 물결 속에서 현재 존재하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 현재 영생의 물결 속에 존재하면서도 영생의 확신이 없는 자는 마귀 생각에 사로잡힌 것이다. 일초 일초 온전한 완전자가 돼라! 했던 것이다. 과거에 잘 믿은 것, 미래에 잘 믿겠다는 결심 다 필요 없다. 지금 바로 현재가 가장 중요한 것이다. 현재 내가 잘 믿고 하나님 안에 온전히 있으면 그가 바로 하나님인 것이다. 과거에 잘 믿었던 것, 하나님께 어떻게 기웠던 것 그 과거를 생각하는 자체가 자유율법에 걸리는 것이다.

‘나와 세상은 간 곳이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여기를 봐도 저기를 봐도, 하늘을 봐도 땅을 봐도 구속한 주만 보였다. 나와 세상은 간 곳이 없다. 얼마나 사모했으면 눈을 감으나 뜨나 주님만 보였겠는가? 그런 고로 고도로 사모해서 어디나 내 주님이 보일 정도면 바로 그가 의인이다. 그가 바로 하나님과 일체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다.*

어제 매 맞은 집에 또 갔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어제 이 사람을 때린 주류도매상 사장은 반색을 하며 반가이 맞아주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과거에 자기도 자전거를 타고 장사를 다닌 시절이 있었다는 것이었다.

젊은 청년이 먹고 살겠다고 장사하러 온 것을 안 사면 될 텐데 괜히 사람을 때리고 욕까지 했으며 지난밤 마음이 아파 잠을 제대로 못 이뤘다고 했다.

그때 이 사람은 기가 살아서 “괜찮습니다. 신앙촌 콜다가 보기에는 이래도 맛은 좋습니다. 한번 잡수어보세요!” 하면서 병뚜껑을 따고 맛을 보라고 권했다. 그러자 어제의 그 기세등등했던 사람은 얼마나 미안했는지 콜라 한 병을 받아 단숨에 다 마시고 나서 “야! 이렇게 맛이 좋은 콜라를 먹어보지도 않고 그런 실수를 했더니” 하면서 탄성을 자아냈다. 그러면서 젊은 친구가 장사를 해서 먹고 살겠다는데 어제는 내가 성질이 못해서 때리기까지 했는데, 그에 대한 사과로 이 콜라를 팔아 줄 테니 우선 한 트럭 분량만 가지고 오시오.”라는 것이었다.

이것을 기회로 장사길이 열리면서 차떼기로 판매가 되었고, 점점 판매량이 늘어지며 장사가 잘 되기 시작했다. 끝까지 신앙 안에서 살면서 포기하지 않고 힘쓰고 노력하니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 주신 것이었다. 나날이 판매량을 넓혀 나가니 기존의 널리 알려진 칠성콜라·사이다의 판매가 현저히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칠성회사 측에서 사람을 보내어 이 사



매를 맞아도 후퇴란 없었다



람을 스카웃하려는 계획으로 보수는 원하는 대로 줄 테니 자기 회사에 와서 경영자로서 일 좀 해달라는 제의를 해왔다.

그러나 이 사람은 단호히 “내가 돈에 눈이 어두워 신앙촌 콜라·사이다를 그만두고 칠성콜라·사이다를 하게 되면 나는 배신자가 됩니다. 나는 굶어 죽으면 죽었지, 그 짓은 못하겠습니다.”라고 하였다. 그랬더니 칠성에서 온 그 사람은 “돈만 아는 요즈음 세상에도 선생님 같은 분이 있다니 정말 감격했습니다.”고 말하였다. 그래서 찾아온 그 사람과 잘 협상해서 이 사람은 제과점만 하기로 하고 다방은 칠성에 양보를 하기로 하였다. 그러면서 칠성회사에서 온 사람에게 부탁하기를 “나는 별로 실력도 없고 갈 마음이 없으니, 내 친구 중에 유능한 사람이 있더라. 며 김포 고향에서 놀고 있는 친구를 소개하여 취직을 시켜주었다. 그 친구는 김포 한 고향 친구로서 두병찬이라는 사람이었다. 과거에 내가 중학교 교학을 하면서 세 학생의 학비를 대주며 공부를 시켰던 적이 있었는데, 세 사람 중의 한 사람이었다.

하나님의 끈고한 사정을 알면 눈물 없는 살 수 없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안타까운 사정을 알고는 늘 눈물을 흘렸다. 버스를 타고 눈물을 흘리면서 가는 고로 때론 옆 좌석에 앉은 손님이 “부모님이 돌아 가셨느냐?”고 묻는 경우가 있어 항상 버스를 탈 때는 맨 앞쪽 운전석 맞은 편의 좌석을 이용하곤 했다. 그러나 운전기사까지도 지레 짐작으로 “필수 부모님이 돌아가신 모양인데,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고 산 사람은 건강을 생각해서라도 그만 우세요.”하고 권면을 하는 것이었다. 그럴 때면 뒤라 말은 못 하고 할 수 없이 버스에서 내렸

으며, 걸어서 목적지까지 가곤 했다. 서울 시내 일을 하러 다니다가도 하나님의 끈고하신 사정과 감사함, 또 그 은혜가 배꼽 속에 사무쳐 흘러나오는 눈물을 도저히 참을 수 없을 때는 근처 다방 화장실에 들어가 울었다. 한참 화장실 안에서 울다 보면 문을 노크하는 소리와 함께 “손님, 빨리 좀 나와주세요. 무슨 손님이 화장실을 이렇게 오래 사용하세요?”라는 독촉 소리가 들리곤 했다. 그럴 때면 “죄송합니다”하고 또 다른 다방 화장실로 옮겨가서 울기도 했다.

예배를 보기 위해선 어디든 마다하지 않아

신앙촌 좁은 지역사회에서 마귀로 내몰리며 신앙생활 하기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다. 전도관 식구를 모두가 ‘조 중위는 마귀’라 하며 꺾박하고 의면하고 때리기도 해서 예배를 제대로 볼 수 없었지만, 유일하게 서울 중구제단 최수영 전도사만이 이 사람을 받아들여 예배 보는 것을 허용하였다. 그러므로 이 사람은 최수영 전도사가 옮겨가는 곳마다 따라다녔다. 최수영 전도사가 중구제단에 있으면 이 사람은 중구제단에 가서 예배를 보고 남대문지관에 있을 때는 남대문지관, 신림동에 전보발령 되면 신림동지관으로, 그 밖에 세검정지관과 도봉동지관 등 몇 군데나 옮겨 다니면서도 낮에는 일을 하면서 새벽 예배에 빠지지 않고 매일 같이 참석했다. 아무리 멀어도, 무슨 일이 있어도 어김없이 새벽 공기를 헤치며 오토바이를 타고 다녔다. 그런데도 대개 어느 제단에서도 예배 시간 전에 항상 도착할 수 있었다.

그렇게 어려움을 아랑곳하지 않고 제단에 가서 무릎 꿇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면, 예배가 끝나 제단 안이 텅 비어도 혼자 남아서 아침이 될 때까지 목을 놓고 영영 울며 매달리면서 기도 생활을 했던 것이다. 그런 중에 30여 년 동안 새벽제단을 빠져본 사실이 없으며 하루도 전도를 게을리 해본 날이 없었다.*